

세상을 이해하는 명언, 잠언, 속언

명언



애국, 국가에 대한 명언, 잠언, 속언

명언





애국, 국가에 대한 명언

- 고향의 땅만큼 부드러운 땅은 없다.

<호메로스, 「오디세이아」, BC 800~BC 750>

- 조국에 대한 사랑이 세상의 모든 논거보다 훨씬 강하다.

<오비디우스, 「흑해로부터의 편지」, BC 43~ AD 17>

- 하늘에서 보면 모두 같은 땅이다.

<페트로니우스, 「사티리콘」, 20~66>

- 사람은 항상 고향에 애착이 있다.

<안데르센, 「」, 1805~1875>

-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이들에게 조국은 얼마나 소중한가!

<볼테르, 「탕크레드」, 1694~1778>

- 조국이 커질수록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줄어든다.

<볼테르, 「철학사전」, 1694~1778>

-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 태어났다.

<플라톤, 「아르키타스」, 1754~1824>

- 조국에 봉사하는 자는 조상이 필요 없다.

<볼테르, 「메로프」, 1694~1778>

- 용감한 자에게는 모든 나라가 그의 조국이다.

<데모크리토스, 「윤리학」, BC 460~BC 370>

- 우리는 항상 우리의 출신지에 집착한다.

<라퐁텐, 「우화」, 1621~1695>

- 갈리아인(프랑스인)들은 대단한 재간을 지닌 종족이다.

<율리우스카이사르, 「갈리아 전기」, 1730~1809>

- 프랑스인들은 보기보다 현명하다.

<프랜시스베이컨, 「수상록」, 1561~1626>

- 프랑스에서는 모든 미인이 최고의 권위를 지닌다.

<Ch.S.파바르, 「세 명의 술탄」, 미상~1761>

- 명확하지 않은 것은 프랑스어가 아니다.

<리바롤, 「프랑스어의 보편성에 대하여」, 1753~1801>

- 한 국민이 빵 없이도 살 수 있따는 것을 알게 된다면,
나는 프랑스인들이 영광 없이 살 수 있다는 것도 믿으리라.

<나폴레옹1세, 「금언과 성찰」, 1769~1821>

- 프랑스인은 태생이 가볍지만 절제할 줄도 안다.

<조셉주베르, 「사유, 잠언, 에세이」, 1754~1824>

- 프랑스인들은 여흥에서는 가볍고 변덕스러우나, 취향에서는 단호하고 진지하다.

<루이드보날, 「잠언과 성찰」, 1754~1840>

- 폴란드는 정복 의식이 전혀 없는 유일한 나라이다.

<볼테르, 「국민성과 국가 관습에 관한 에세이」, 1694~1778>

- 프랑스는 천국 다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왕국이다.

<휴고그로티우스, 「전쟁과 평화의 법」, 1583~1645>

- 조국을 단 한번도 떠나보지 않은 자는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.

<카를로골도니, 「파멜라」, 1707~1793>

- 어떤 곳에서는 파리(Paris)를 파리라고 불러야 하지만,
또 다른 곳에서는 왕국의 수도라고 불러야 한다.

<파스칼, 「팡세」, 1623~1662>

- 우리가 가장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곳은 우리들의 나라 안이다.

<밀턴, 1608~1674>

- 위대한 나라들이란 위대한 인물들을 낳는 나라들이다.

<디즈레일리, 1804~1881>

- 평화로운 때의 애국심은 다만 사람들이 앞뜰을 쓸고, 가업에 충실하며,
세상 일을 학습하여 나라의 번영을 기하는 데에 있다.

<괴테, 「」, 1749~1832>

- 우리가 행복한 곳, 그곳이 바로 고향이다.

<아리스토파네스, 「복신」, BC445~BC385>